



創造空間의 確保

國土는 物的生産의 基盤으로 最大의 效率을 發揮할 수 있도록 利用되어야 한다는 國土開發의 概念이 人間의 精神的인 發展에 寄與할 수 있어야 하며 自然과의 調和, 人間性的인 涵養, 生活의 보람을 最適化하여야 하는 것으로 理解되고 있다.

機械와 能率, 新製品과 大量生産이란 消費들이가 이루는 物的인 豐饒만으로는 無限의 過欲, 制動없는 加速一邊倒의 生存(過欲)競爭이 熱度를 더하여 征服과 屈服, 勝利와 敗北을 주고 받아 끝내는 모두 人間性을 잃고 生의 意欲마저 잃은 悲慘한 人類社會가 될지 모른다는 것을 드디어 切感한 것이다.

모든 國土利用計劃이 餘暇空間이라 하여 여러가지 理念과 技法으로 物的生産의 面에서는 非效率的인 空間을 確保하고 있는데 이 餘暇空間이야말로 人間의 智慧가 未來의 人類社會를 아끼고 지키려는 意志라 할 수 있다.

餘暇는 生業 곧 生存競爭을 위한 活動時間을 基準으로 한 餘分으로 理解되었으나 最近에는 再生産을 위한 必要時間으로 指稱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모두들 生産一邊倒에 치우친 느낌이다. 모처럼 餘暇空間을 定해 놓고 觀光慰樂 등 이틈으로 그 속에서까지 뭔가 生産 所得을 위한 競爭心理를 드러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이다.

週五日勤務制가 施行되는 段階에 이르면 每週末은 連休가 되는데다 所得도 높아져서 보다 넓고 큰 餘暇需要가 發生할 것이 分明하다. 이 餘暇야말로 生存競爭인 生業의 일터에서 떠나 일한 보람을 느끼고 더욱 보람있는 앞날의 自身을 그려보고 人類社會라 人間性을 되찾고 새로운 自己를 이루어나가는 創造의 空間이 되어야 한다. 거창하게 말하면 哈느님이 宇宙創造의 날에 지냈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되살릴 수 있는 空間이 되어야 한다.

부지런히, 온 힘을 다하여, 獻身的으로 일한 사람들이 느긋한 마음의 餘裕를 갖고 物的競爭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일한 보람을 알차게 느낄 수 있는 創造의 空間을 確保하는 것은 앞날의 國土에 관한 計劃에서 가장 重要하고 優先되어야 할 基本指標다.

會長 金 允 基